

누가 신화로 만들었는가…‘화가 이중섭’을 다시 읽다

1950년 종이에 유화물감으로 완성됐던 ‘황소’는 굵고 거친 선과 강렬한 붓질로 소의 생동감과 기세를 포착한 대표작이다. 지난 2010년 35억 6000만 원에 낙찰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남긴 소 작품 연작들은 여럿이다. 대중들에 널리 알려진 작품은 ‘황소’다. 이 ‘황소’를 위시로 ‘싸우는 소’, ‘흰소’, ‘움직이는 흰소’, ‘소와 어린이’ 등을 남겼다. 그런데 소를 단순한 동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가 표현한 황소는 당시 한국을 떠돌리게 하는 민족적 상징으로 인식되던 사회 분위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의 작품들은 대개 대중들에게 폭넓게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의 한 가운데 불운한 시대와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작품에 투영했다. 그의 작품은 모두가 서사가 녹아난 것이었다.

작가는 시대사적 불운과 기구한 개인사까지 겹쳐 부산 통영 제주 등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다. 그의 작품에는 소와 아이, 가족, 풍경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의 삶과 경험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단서를 조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2021년 고 이진희(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이 광주시립미술관(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미술관)에 은색 담배 종이에 그린 ‘은지화’(銀紙畵) 4점과 연인 아모모 마사코에게 보낸 ‘엽서화’ 4점이 기증된 뒤 전시를 통해 공개하면서 그의 작품을 바로 눈 앞에서 접한 적이 있다. 화구를 살 돈조차 없는 궁핍한 생활 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했다는 그의 은지화는 일반적으로 1950년대 전후

(재)광주비엔날레 윤범모 대표 ‘이중섭 신화, 거꾸로 보기’ 출간

탄생 110주년·사망 70주년 맞아 출생부터 요절까지 등 재조망

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은지화 3점이 1940년대 작품이어서 은지화의 시작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그의 ‘엽서화’는 1940~1943년 연인에게 글자 없이 그림만 그려 보낸 것으로 현재 90여점이 전해오고 있는 가운데 기증된 ‘엽서화’ 4점은 이중섭 초기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국민화가로 불리는 평남 병원 출생 이중섭(1916~1956)의 작업과 작품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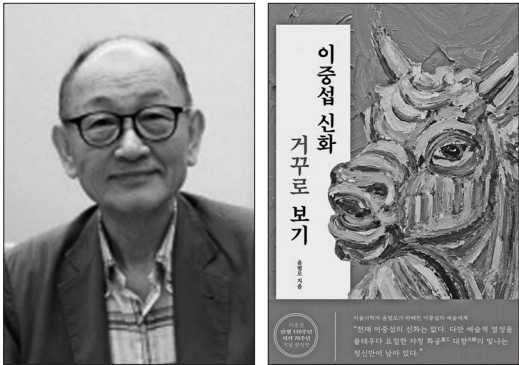
이처럼 더욱 관심이 높아진 이중섭의 작품 이야기를 원로 미술사학자로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자 현 광주비엔날레재단을 맡고 있는 윤범모 대표가 ‘이중섭 신화, 거꾸로 보기’(예술시대 刊)라는 미술비평을 통해 전개,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자는 ‘국민화가 이중섭을 둘러싼 70년의 신화를 뒤집다’라는 모토로 올해 이중섭 탄생 110주년과 사망 7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주변에 깔려있는 현재 이중섭이 ‘과연 진짜 이중섭인가’를 묻는다.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가장 강력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 이중섭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는 것으로, 책장을 넘기면 저자가 ‘왜 이 미술비평을 꺼내들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왕성한 집필자가 맞다.

시집만 해도 벌써 네권을 선보였다. 지난해만도 ‘미술의 전통과 시대정신’과 시집 ‘화벽 火宅’을 펴낸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사가 중 한명이다. 현역 등단 시인이기도 해 그는 이론과 현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간직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가 드민 이중섭의 키워를 역시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지식의 나열이 아니다. 그의 해박한 식견이 군데 군데 투영돼 싹싹들을 들여보는 듯한 인상을 안겨준다.

저자는 1970년대 이후 이중섭의 비극적 생애와 요절, 순애보가 대중적 서사와 결합하면서 ‘현재 이중섭 신화’가 굳어졌다고 바라본다. 이것이 이 비평서에서 줄곧 제기한 문제의식으로, 신화를 해체한다고 해서 이중섭의 예술적 가치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그의 작품을 접한 대중들은 황소의 입술이 유독 빨갛게 표현된 의구심을 한 두번쯤은 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 역시 명확하게 풀어준다. “대항(이중섭의 호)의 소 그림에 대한 소설가적 상상력은 흥미롭다. 하필이면 원산에서 부산으로 피란과 배치받은 수용소가 식민지 시절의 우사(牛舍)였을까. 그것도 일제에 의한 몰타 약탈의 현장



에서 가족과 함께 견뎌야 하는 처참한 피란 생활의 첫 자리여야 했을까. 조선 소의 약탈 현장에서 대항은 끌려간 소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소 그림을 생각했다. 인간을 위한 식용도 아니고, 노예 같은 노동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을 향해 절절절 웃는 소, 바로 자유와 해방의 소를 그리고자 했다. 부산 피란지의 외양간은 대항 가족의 집이었다는 점, 역설적으로 흥미로운 인연이다. 황소나 대항이나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는 점, 현주소의 공유, 정말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대항 공간에서 황소는 동행하는 도반(道伴)이었다…중략…통영 시절(1954년 추정)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황소 그림은 종이에 유화 물감을 사용한 작품이다. 1954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황소머리 배경은 생각됐지만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 분위기에 소는 황색 기저에 빨간 선으로 강조하여 역동성을 제고시켰다.”(본문 55~56쪽 일부)

특히 그의 말년의 불운한 삶의 족적과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데, 인간 이중섭의 궁구한 시간들과 가족사, 미술계 안팎의 여러 관계들이 다양한 자료 혹은 사료들을 제시했기에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다. 이같은 그의 삶의 족적들이 그의 회화의 서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신화적 시각에 빠지기 쉬울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중섭을 인간 이중섭 그 자체로부터 출발할 때 그의 신화적 시각에 빠지지 않고 인간이자 한 시대를 관통해간 한 화가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전제는 유효하다.

윤범모 대표는 프롤로그를 통해 “나네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세월이다. 그래서 이중섭 예술의 순수성이 그리워 그리고 화공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집필하게 됐다. 마침 2026년은 그의 탄생 110주년과 사망 70주년 해다. 이뿐만 아니라 해에 화가 이중섭, 아니 화공 대항을 위해 줄거를 한정하고자 한다. 신화라는 아지랑이 같은 허울을 벗어내고 화가 자신이 즐겨 그린 알몸으로서의 ‘대항 정신’과 만나기를 희망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1부에서 13부까지 이중섭의 삶과 회화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말미에는 출생에서부터 요절까지를 망라해 그의 삶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보까지 수록돼 있어 그에 대한 독자들의 깊이있는 이해를 고양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6개국 차세대 신진 공연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우리는 얹혀 있다’를 운영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자구앙크.

동시대 감각으로 다시 얹히는 아시아 전통예술

ACC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우리는 얹혀 있다’ 선보여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지역

차세대 예술인 공연·워크숍

아시아의 전통예술이 동시대 음악과 춤,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무대 언어로 확장된다. 아시아의 다양한 몸짓과 소리가 단순히 나란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고 교섭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6개국 차세대 신진 공연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우리는 얹혀 있다’를 운영한다. ‘우리는 얹혀 있다’는 ACC와 동남아시아의 국제교류사업인 ‘2026 차세대 아시아 예술인 커뮤니티’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ACC의 중장기 핵심 주제인 ‘코스모폴리틱스’ 관점에서 각국의 전통예술이 동시대 음악, 춤, 기술과 만나 서로 충돌하고 협상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연과 워크숍, 대담으로 공유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아시아 6개국 차세대 공연 예술인 6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브루나이와 캄보디아에 이어 10월에는 베트남과 태국의 전통예술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공연과 워크숍이 열렸다. 오는 11월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팀이 무대에 오른다.

11월 29일 열릴 공연에는 싱가포르의 언더 더 브릿지 콜렉티브와 인도네시아의 자구앙크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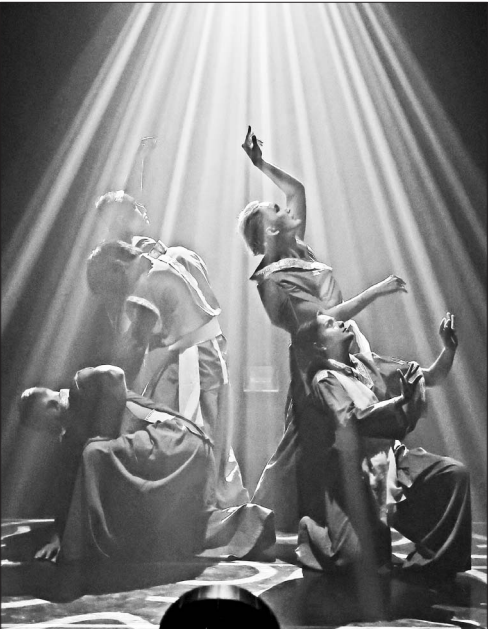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자구앙크는 전자 음향과 현대적 편곡을 통해 전통적인 연주 방식과 현대적인 사운드를 함께 구성한다. 전통음악이 과거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청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싱가포르 언더 더 브릿지 콜렉티브는 인도계 전통 무용을 비롯해 서로 다른 세대와 춤의 형식이 만나 새로운 움직임의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통적 몸짓을 하나의 고정된 형식으로 바라보다, 다른 움직임과 만나고 변주되는 삶이 있는 언어로 제시한다.

27일 열릴 연계 워크숍에서 언더 더 브릿지 콜렉티브는 ‘하이브리드 동작언어: 체화된 실습을 통한 연결 형태’를 주제로 몸을 통해 서로 다른 움직임의 감각을 경험하고, 전통과 동시대적 표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직접 탐색한다.

자구앙크의 워크숍은 ‘인도네시아 탈렘퐁의 리듬을 다시 짜다: 전통에서 하이브리드 사운드로’를 주제로 펼쳐져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의 리듬과 소리를 바탕으로 현대적 사운드와 결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전통음악의 동시대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싱가포르 언더 더 브릿지 콜렉티브의 무대.

11월 프로그램은 앞서 열린 베트남·태국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베트남의 지아오 콜렉티브는 다양한 전통음악을 현대무용과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태국의 비비드카야는 전통악기 켄과 전자음악, 영상·프로젝션을 결합해 전통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는 무대를 펼쳤다.

이튿날인 11일에는 두 팀의 연계 워크숍이 진행됐다. 지아오 콜렉티브는 전통악기와 베트남 전통 음계를 바탕으로 전자 음향과 즉흥연주를 결합하는 과정을 소개했고, 비비드카야는 태국 전통춤과 음악을 생성형 AI, 전자음악, 실시간 동작 인식 기술과 연결해 전통의 움직임을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상욱 전담장은 “공연과 워크숍, 대담을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을 보다 다양한 시선에서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통합 100일의 울림, 새로운 세계 향한 희망의 선을

광주특별시 예술의전당 ‘…New World’ 15일 대극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가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기획공연 그랜드 스테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D+100 시민음악회 Into the New World’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여정을 함께 열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무대다. 친숙한 명곡의 감동과 정통 클래식의 깊이 있는 울림을 함께 전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여운과 예술적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휘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이 맡는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와 작곡과 지휘 전공을 졸업하고 미국 커티스 음악원과 템플대학교에서 수학한 백윤학은 콘서트와 오페라를 아우르는 무대에서 활동해 온 지휘자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향악단, 목포시교향악단, 카메라타전남 단원들로 구성된 전남광주연합오케스트라와 함께 작품의 극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낸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가, 클래식 해설가로 활동하는 안인모는 콘서트 가이드로 참여한다. 곡의 배경



백윤학



손세혁



안인모

과 음악적 특징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클래식에 익숙한 관객은 물론 처음 클래식 공연을 접하는 관객도 음악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은 토마의 오페라 ‘레이몬드’ 서곡으로 막을 연다. 이어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협연한다. 손세혁은 2026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와 3개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은 차세대 피아니스트다.

후반부에는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이 연주된다. 테너 이재식은 김규환의 가곡 ‘남춘’과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대표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노래한다.

공연의 대미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중 4악장 ‘Allegro con fuoco’가 장식한다. 강렬한 금관의 도입부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힘찬 오케스트라의 울림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향한 희망을 전한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예술의전당 누리집과 YES24에서 가능하다. 입장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

시대·지역 따라 이어진 ‘아리랑’

진도 남도국악원 내일 ‘풍류음악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 ‘아리랑’의 역사와 흐름을 해설과 함께 만나는 무대가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은 14일 오후 7시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2026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아리랑’ 그 역사의 물줄기’를 주제로 마련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이자 한민족의 정서적 DNA로 불리는 아리랑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전국 각지에서 전승돼 온 대표 아리랑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는 자리다.

무대에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성악단이 오른다. 공연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불렸던 것으로 전해지는 ‘정선아리랑’ 긴·엮음과 ‘자진아리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조선 후기 한양으로 전파되며 불린 ‘구조아리랑’과 ‘긴아리랑’이 이어진다. 구조아리랑은 옛 명칭인 ‘아리랑’을 바탕으로 전해진 소리이며, 긴아리랑은 서울·경기 지역 특유의 고요하고 깊은 정서를 담은 아리랑이다.

이와 함께 아리랑이 영화 주제가로 확장된 흐름을 살펴본다.

밀양 사람 박남포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밀양아리랑’과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주제가로 널리 불린 ‘본조아리랑’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마지막은 남도의 맛과 향이 어우러진 ‘진도아리랑’이 장식한다. 진도아리랑은 남도 특유의 흥과 신명, 애잔한 정서를 함께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아리랑의 폭넓은 울림을 전달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해설은 김영은 전 국립국악원장이 맡는다. 김 전 원장은 서울대 학사, 한양대 석사, 성균관대 박사학위를 거쳐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강릉원주대 음악과 교수, 국립국악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민요학회 회장과 국악방송 사장, 국가무형유산위원장 등을 지내며 전통음악 연구와 대중화에 힘써왔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전화 예약자는 우선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또는 장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모습.